

# 제주도 무가 속의 숫자 12에 대한 고찰

-中國 신화·무속과의 대비를 中心으로-

王 艷\*

<차례>

- I. 서론
- II. 제주도 무가 속에 나타난 숫자 12의 양상
- III. 중국 신화·무속 속의 12의 의미
- IV. 제주도 무가 속의 숫자 12의 의미
- V. 결론

## 국문요약

숫자는 단순히 계산하는 기호로서의 의미 외에도 특정한 공동체 내에서 사회 현상의 부호화 형식으로서 존재하기도 한다. 그것은 철학, 종교, 신화, 무술(巫術), 습속 등 여러 분야에서 하나의 필수적인 화소로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에 특별히 신비롭고 신성한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제주도 서사무가에는 특정한 숫자가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그 의미가 단순히 계산 기호의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고 숫자에는 집단의식의 공동적 감정과 관념이 들어 있다. 신화 속의 이런 숫자 원형은 신화적 사고 방식과 원시적 사유의 내재적인 특징을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의 우주, 자연, 인생에 대한 깊은 사고가 구현되어 있어서 다른 민족문화를 이해할 때에도 특수한 가치를 지닌다. 그 중에서도 숫자 12는 제주도 무가에 자주 등장하는 숫자이고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

\*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천간지지(天干地支)중의 12지지(地支)를 바탕으로 한 12가 천문학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문화 현상이 형성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신화는 인간세계의 삶의 역사이고, 자연세계의 형성과 변천을 말해주는 과학이다. 천상(天象)에서 오는 12는 신화의 특성이 부여되고 신성한 상징의미를 갖는다. 12는 하늘을 의미하는 숫자로서 가장 크고 가장 많으며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신성한 숫자를 의미한다. 무속의례에서도 집단 의식의 공동적 감정과 관념이 숫자 12에 들어 있다.

주제어 : 제주도 무가, 모식 숫자, 집단 의식, 숫자12, 天之大數, 12地支, 12神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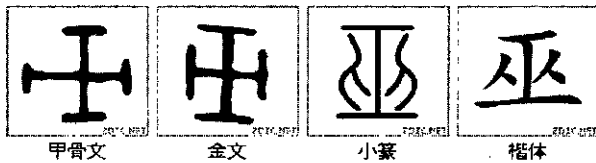
## I. 서론

공간과 시간과 숫자는 신화 세계의 구조를 결정하는 세 개의 중요한 형식적 주제이다. 숫자는 단순히 계산하는 기호로서의 의미 외에도 특정한 공동체 내에서 사회 현상의 부호화 형식으로서 존재하기도 한다. 그것은 철학·종교·신화·무술(巫術)·습속 등 여러 분야에서 하나의 필수적인 화소로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특별히 신비롭고 신성한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인류학자들은 이를 가리켜 신비숫자, 모식숫자 혹은 무술숫자라고 칭한다. “숫자는 원형이다. 그것들은 자주 우리들의 꿈, 상상과 환각 속에서 나타나고, 숫자는 우리들을 지배할 수 있다(Harry A Willmer; 楊紹剛, 1998: 260쪽).” 길고 긴 인류 역사 문화의 발전 과정에서 사람들은 숫자에 특수한 의미와 내포를 부여했다. “집단적 표상에서는…숫자가 계산의 단위이기보다는 신비로운 존재이다(Lévy-Bruhl, Lucien; 丁由, 1997: 201쪽).”

숫자 원형은 하나의 원시적 관념의 매개체이고 집단적 무의식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화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획득한 우주에 대해 직관적 인식이 구체적 숫자가 되어서 신성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다른 숫자 원형은 다른 민족문화 속에서 역시 다른 신비로운 내포와 예측의미를 가지고 있다. “숫자는 민족문화가 반영되어 있으며 민족문화에 잠재되어 있는 지혜를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숫자는 독특한 문화현상중 하나로 사람들 사이에 정보를 전달할 뿐 아니라 감정까지도 전달하는 코드”라고 할 수 있다(나상진, 2010: 390-391쪽).

특히 무속의식은 숫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관계는 한자 무(巫)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한자 무(巫)의 어원을 살펴보면, 중국 송대의 운서(韻書)인 『광운(廣韻)』에 “거북이로 점을 치는 것은 복(卜)이라고 하고 시(蓍, 가새풀 맺가지)로 점을 치는 것은 서(筮)라고 한다. 무(巫)는 모두 서(筮)로 쓴다.”<sup>1)</sup>라고 함으로써 무(巫)는 복서(卜筮)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좌전(左傳)』에는 “서(筮)는 수(數)이다<sup>2)</sup>”라는 주장이 있다. 심지어 상(商)·주(周)시기의 무(巫)는 수학자(數學者)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림 1> 한자 무(巫)

1) 陳彭年, 『廣韻』: “龜曰卜, 蓍曰筮. 巫咸作筮.”

2) 左丘明(2007), 『左傳·僖公十五年』: “筮, 數也.”, 中華書局, 57쪽.

위 그림을 보면 갑골문과 금문의 무(巫)자는 공장(工匠)이 들어 있는 그림쇠(원형을 그리는 제구)와 네모, 사각형을 그리는 척(尺)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무속의식은 수(數)를 통해서, 즉 서(筮)·복(卜)·역(易)의 과정을 거쳐 이성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가란 무격(巫覡)이 그들의 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속의례에서 구연하는 구비물을 말한다. 그 내용이 신의 내력·행적을 설명하는 신성한 설화라는 면에서는 신화가 된다(현용준·현승환, 1996: 해제 3쪽).” 이렇게 보면, 제주도 신화는 무속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무속의식은 숫자와 많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주도 신화는 당연히 숫자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제주도에는 ‘절 오백 당 오백’이라는 말이 있고 ‘오백 장군’도 있다. 제주도를 ‘일만 팔천 신의 고향’이라고 한다. 어승생악(御乘生岳) 동쪽 동산에는 크고 작은 꼬불꼬불한 골짜기가 많아서 ‘아흔아홉골(九十九谷)’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삼을나, 삼성혈, 삼공주, 삼형제, 일월삼명도, 오리정(五里亭), 삼황오제, 삼강오륜법, 부군칠성… 등 제주민의 의식과 관련된 숫자는 많다. 그 중에서도 숫자 12는 더욱 자주 등장하는 숫자이다. 현재 제주도의 큰곳에서 노래 불리어지는 일반신 본풀이는 12편이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음력 이월 초하루에 귀덕·김녕 등지에서는 나무 대를 12개 세워 신을 맞이하여 제사를 지낸다.”<sup>3)</sup>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제주도 무가 속에는 열두 풍운, 열두 흥협, 열두 시만국 등 숫자 12가 많이 나타난다. 3, 5, 7, 9, 12 등 이러한 숫자들은 우연의 일치이거나 임의로, 무작위로 쓰여진 숫자라고 간단하게 판단하면 안 될 것이고 특정한 기능과 의미를 가진다고 보

3) 노사신·강희명, 『東國輿地勝覽』卷38, 濟州牧風俗條, “又二月朔日 於歸德金寧等地 立木竿十二 迎神祭之.” 662쪽.

아야 할 것이다. 제주도 서사무가에는 이처럼 특정한 숫자가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계산 기호의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들 숫자에는 집단의식의 공동적 감정과 관념이 들어 있다. 신화에 이런 숫자 원형은 신화적 사고 방식과 원시적 사유의 내재적인 특징을 표현하고 있다. 옛날 사람들은 우주·자연·인생에 대해 깊은 사고를 구현하고 있어서 숫자는 다른 민족문화를 이해할 때에도 특수한 가치를 지닌다.

국내외에서 이미 숫자들이 지니는 상징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숫자의 의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나왔다. 박종한(2003)의 「숫자에 담긴 중국문화와 그 활용」, 이재승(2003)의 「중·외 비교를 통해 본 숫자의 문화적 함의」, 장범성(2000)의 「중국인의 숫자 관념과 민속」 등의 논문들은 중국문화 속에 들어 있는 숫자의 특별한 의미를 다루고 있다. 나상진(2011)의 「이족 4대 창세서사시에 나타난 상징 분석: 숫자상징을 중심으로」는 이족 창세신화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징들 가운데 첫 번째로 숫자의 상징을 살펴보았다. 특히 숫자 3, 4, 7, 9, 13에 중점을 두어 그들이 함유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중국 소수 민족 신화의 독특한 가치를 찾아 새롭게 조명해 보았다. 또한 우실하(2011)의 「3수 분화의 세계관(1-3-9-81)의 기원과 홍산문화: 홍산문화에 보이는 성수(聖數) 3, 9, 81을 중심으로」, 김영균(2011)의 「땃줄과 숫자 3 연구」는 구체적으로 한국 전통문화 속의 숫자 3, 9, 81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명백훈(2006)의 「숫자 12 총만과 완전의 수」, 박현봉·유기룡(1965)의 「농악12차」, 남성진(2011)의 「민속예술에서 숫자 12의 도입과 '관념의 구체화' 양상: 영남 지역 12차 풍물을 중심으로」 등의 논문들은 숫자 12의 의미 특히 한국 민속예술에서의 숫자 12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숫자의 의미에 관한 연구들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지만 제주신화에

들어 있는 숫자는 단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 내용의 하나, 혹은 무술의식 요소의 하나로만 파악하고 있을 뿐, 숫자의 상징 의미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제주도 무가는 중국 역학(易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주도 서사무가에서 자주 나오는 원천강(袁天綱)<sup>4)</sup>은 중국 당 나라 때의 매우 유명한 천문학자이며 역학(易學)의 대가였다. 그리고 오행(五行) 팔괘(八卦)와 사주(四柱) 주역(周易)과 단수(單數) 육갑(六甲)이라는 말도 흔히 볼 수 있는 사실로 보면, 제주도 무가는 중국 역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중국 전통문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제주도 서사무가에 나오는 숫자는 단순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술수(術數)와 중국 도가 사상을 비롯한 동양 철학과 관련이 되어 있고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본고는 중국 전통문화 속의 숫자 12에 대한 심층적이고 이성적인 분석을 통해서 제주신화·무속 속의 12가 가지는 숫자 원형의 상징 의미를 찾아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숫자12가 갖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며 또 그 의미를 바탕으로 제주신화의 가치를 분석함으로써 제주신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의 하나가 되었으면 한다.

## II. 제주도 무가 속에 나타난 숫자 12의 양상

### 1. 제주도 무가 속에 나타나는 숫자 12의 사례

현용준·현승환이 역주한 『제주도 무가』를 살펴보면 숫자 12가 흔히

4) 『제주도 무가에』는 袁天綱으로 나오는데 중국 문헌에는 袁天罡이라 한다.

나타난다. 여기에 나오는 숫자 12에 관한 주요 내용들을 도표로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제주도 무가 속에 나타나는 숫자 12의 사례

	숫자 12 관련 용례	출 전	쪽 수	
일반신본풀이	十二風雲 十二風雲造化	삼승할망본풀이	33	
		이공본풀이	93	
세경본풀이		257		
칠성본풀이		293		
	十二新萬穀	세경본풀이	255	
		칠성본풀이	297	
당신본풀이	十二設盤	궤네킷당본풀이	333	
		월정 본향당본풀이	341	
		세화 본향당본풀이	361	
	十二符術	월정 본향당본풀이	341	
	十二海	세화 본향당본풀이	357	
	열두 폭 차마	월정 본향당본풀이	337	
	十二凶險	월정 본향당본풀이	337	
		토산오드렛당본풀이	381	
	十二風雲造化	궤네킷당본풀이	333	
무속의례	十二凶險造化風雲	영감놀이	457	
		十二神位前	초감제	547
		十二門	초감제	525
		十二諸國	초감제	517
		十二新萬穀	초감제	545
			세경놀이	495
十二災禍	초감제	529		

## 2. 제주도 무가 속에 나타나는 숫자 12의 양상

숫자 12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위 도표와 관련된 원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2〉 제주도 무가 속에 나타나는 숫자 12의 양상

분류	숫자12 관련 용례	숫자 12 관련 원문	출 전	쪽 수
신에게 바치는 예물과 곡식 등	十二 新萬穀	① 자청비가 천자왕에게 등장(登狀)될 때, “오곡 열두 시만곡이나 내 주십시오.” 시만곡을 내 주니 문도령을 거느리고 칠월 열 나흘날은 백중이 됩니다.	세경 본풀이	255
		② “나는 고방의 큰 항아리 아래로, 작은 항아리 아래로, 검은 항아리 노란 항아리 아래로, 큰 뒤주 작은 뒤주 아래로, 섬 지키기 말 지키기 되 지키기 흠 지키기 마련하여 열두시만곡을 거두어 들어 안칠성으로 들어 서서 얻어먹겠노라.” 어머니는 고방 안칠성으로 들어 서서 열두시만곡을 거두어 지켜주던 칠성입니다.	칠성 본풀이	297
		③ 천황의 목동, 지황의 목동, 인황의 목동, 세경만국 저 목동, 일소장 이소장 삼소장 사오륙소장에서 놀던 목동을 거느리고 열두시만곡을 가느러서 자손에게 곡식 번성을 시켜주려고, 양반의 집에는 자부일월 상세경, 심방의 집에는 직부일월 상세경 영연탁상 아래로 살려오십시오.	초감제	545
十二 設盤	① 알케네기에 자리를 고르고 당클을 설립하고 제청(祭廳)을 잘 차려서 만민은 일년에 한번 번소의 큰 돼지 검은 돼지 흰 돼지 등을 잡아 백근근량을 저울에 달아 수육으로 삶아서 열 두 뼈를 감상(監床)하고 열 두 반기를 물 한 방울도 덜지 않고 올려 위하는 신당입니다.	케케 깃당 본풀이	333	
	② “부인에게 올리는 반기는 두 개, 아기 뉘은 일곱 반기, 동쪽 시왕머들의 신 뉘은 하나, 당에 들어오는 입구의 신 뉘은 하나, 당의 심방 뉘도 하나, 이렇게 열 두 반기를 받으시오.”	월정본 항당본 풀이	341	



		③ 금상님에게는 따로 상을 차려 술도 장군 받도 장군 덕도 장군 차려 놓고 후원으로 나가서 청소새를 베어 갈아 돼지를 잡을 때 털 바치고, 피 바치고, 발톱 바치고, 수유으로 삶아 열두 뼈를 하나씩 감상하고 열두 반기에 빠짐없이 올려 제를 지냅니다.	세화본 향당본 풀이- 금상님 본풀이	361
	十二 神位	대정에 가면 덕수리 광정당 한집, 정의 가면 신흥리 관오당, 제주의 목 안 도성 삼문 안에는 남문 밖의 고산태오 광양당, 열두신위전 살려오십시오.	초감계	547
	열 두쪽 치마	그날 밤에는 이 뱀신이 아기씨로 다시 환생하고, 남방 사주 봉애바지 백방사주 저고리 열 두쪽 대홍단 홀단 치마 둘러입고 짐을 쳐 보니, 제주 남방국의 신산국이 천정배뿔이 된다 합디다.	월정본 향당본 풀이	337
제앙	十二 凶險 <sup>5)</sup>	① 김침지 영감은 새벽에 불락을 낚으러 복덕가에 내려가 보니, 무쇠석갈이 떠내려 와 있었는데 그것을 부쉬 안을 보니 속에는 큰 구렁이가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김침지 영감은 멍칫 놀랐는데, 그로부터 김침지 영감의 딸 삼형제가 일시에 아파갑니다. 구렁이가 딸 삼형제에게 열두 흠혈을 준 것이로구나.	월정본 향당본 풀이	337
		② 자손가정에 열두흠혈을 주면 위하게 되는 영급 좋은 당신님 분상한 자손들의 굶은 허물 중 상을 다 견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곳입니다.	토산여 드레당 본풀이	381
	十二 風雲 <sup>6)</sup>	① "인간에 생물을 주고 환생을 주어 석달 열흘 백일이 되면 경중, 경세 같은 열두 풍운의 병을 주어 얻어 먹겠다."	삼승 활망 본풀이	33
② 그 차리에 장자 집 작은딸아기를 죽여 두고 어머니를 인도하여 서천꽃밭으로 들어간다. 그때에 어머니 죽여 청대밭 흑대밭 푸른 떠밭에 던졌던 법으로 청대 같은 청사록 흑대 같은 흑사록 사악한 열두 풍운을 주는 법입니다.		이공 본풀이	93	
	十二 風雲 造化	① 전수남이가 자청비에게 와서 안 준다고 이르니, 자청비가 아홉 머슴에게 급증을 불러 주고, 아홉 소에는 등에, 정기에는 흉한 열두 풍운조화를 불러 그 밭에 대 흉년을 주었다.	세경 본풀이	257

5) 『제주도 무가』에는 十二凶險이라고 하는데 十二凶險이 맞는 것 같다.

6) 열두 풍운은 십이풍운조화의 축약.

		② 침을 뱉고 세 번을 뱉었더니, 그날부터 입 속이 아픈 열두 풍운조화를 불러준다.	칠성 본풀이	293
		③ 케네깃한집은 마흔여덟 상단골 서른여덟 중단골 스물여덟 하단골에 열두 풍운조화를 불러주니, 단골 들은 원인을 알 수 없어 걱정합니다.	케네 깃당 본풀이	333
	十二凶險 造化風雲	…여름철이 가까워지면 수다히 많은 백성들이 성널오름으로 몰았으려 갔을 때, 열두 흥협 풍운조화를 주어 남자, 여자 꿈에 나타나 어서 같이 살자…	영감 놀이	457
	十二 災禍	이 새(邪)가 들어와서 이 집 자손들에게 열두 풍운 열두 재화를 불러주는 새는 새물(사물,邪物)로 쫓아 버리자.	초감제	529
기타	十二 符術	“마흔여덟 상단골 서른여덟 중단골 스물여덟 하단골 굽어 보십시오. 열두 부술은 두었다가 뒷에 쓰러하오?” 이 말 듣고 서당할마님은 마흔여덟 상단골에 머리 두통을 불러주고, 서른여덟 중단골에 상토하도를 불러주고, 스물여덟 하단골에 복통을 불러준다.	월정 본향당 본풀이	341
	十二海	열두 바다를 건너서 제주 바다로 들어올 때, 사수도를 건너서 한라산을 향하여 오는데, 소섬 우목개에 잠시 머물러 상세화리를 향하여 들어가려고 합니다.	금상님 본풀이	357
	十二 諸國	안남국 두만강 몽고 대천 십이제국 안입니다. 서해 안에도 열두 나라가 있고, 서해 밖에도 열두 나라가 있습니다.	초감제	517
	十二門	천황(天皇)에 가면 열 두 문, 지황(地皇)에 가면 열 한 문, 인황(人皇)에 가면 아홉 문을 잡습니다.	초감제	525

위 도표를 통해 제주도 무가에는 숫자 12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화적 사유에서는 숫자의 역할이 모든 존재와 사실, 다시 말하면 전부 세속적인 사물들을 신화-종교 방식의 신성화 과정에 집어넣는 것이다. 설령 사물의 감성적 외관의 차별이 있더라도 같은 숫자가 가지고 있는 사물들은 신화적 사유로 볼 때 바로 같은 것이고 어떤 특수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주도 무가에 나타나는 숫자 12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다음 장에서는 중국 신화·무속 속에 나타나는 12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 제주도 무가에 나타나는 숫자 12의 의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Ⅲ. 중국 신화·무속 속의 12의 의미

#### 1. 천수(天數) 12-숫자 12의 의미

중국 전통 문화 속에 숫자 12는 신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이다. 『순자』의 「성상편」에는 대우(大禹) 치수(治水)를 언급할 때 “북쪽으로 九河, 十二渚, 三江을 소통하게 하였다.”<sup>7)</sup>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나오는 3, 9, 12는 모두 실제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다는 의미를 가진다. 12는 그중에서도 다수와 극한이라는 의미이고 극히 존숭의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존숭의 위치는 지극히 존귀하고 극한에 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숫자 12는 인간의 제왕이나 하늘의 신령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고 심지어 왕권의 상징이 되었다. 예를 들어, 『춘추좌전·애공칠년』에는 “주나라의 왕은 예를 행해 제물을 바치는 데 열두 가지를 넘지 아니하니 하늘의 가장 큰 숫자로 여긴다.”<sup>8)</sup>라고 말하였다. 12는 황제가 바치는 제물의 최대 수량으로 나타난다. 또한, 『예기(禮記)·옥조(玉藻)』에는 “천자의 옥조는 12류가 있다(天子玉藻, 十有二旒).”라는 기록이 있다. 류(旒)는 면류

7) 『荀子·成相』, 第25, “禹有功, 抑下鴻, 辟除民害逐共工. 北決九河, 通十二渚, 疏三江.”

8) 『春秋左傳·哀公七年』, “周之王也, 制禮上物, 不過十二, 以爲天之數也.”

관(冕旒冠)의 앞뒤에 늘어뜨리는 주옥을 꿰 실 모양의 장식인데 12개는 단순한 수량이 아니라 천자(天子)의 의례적 규칙이다.

“모든 무술(巫術)은 대개 숫자의 마술(魔術)이다(Ernst Cassirer; 黃龍保, 1992: 162쪽).” 숫자 12의 이러한 신성한 속성은 원시 무술과 그것으로 발전해왔던 제사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서(漢書)·교사지(郊祀志) 하』에는 황제(黃帝)는 오성십이루(五城十二樓)를 짓고 신인(神人)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기록이 있다.<sup>9)</sup> 오성십이루(五城十二樓)는 ‘신선(神仙)이 산다는 곳’이라는 뜻이다. 중국 고대의 무의(巫儀) 혹은 예제(禮制)에서는 숫자 12가 분명히 극히 존중한 상징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문선』에 “제천(祭天)-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교(郊)이고 제지(祭地)-땅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사(祀)이다”라고 하였다. 교사지(郊祀志)는 천지(天地)에 제사를 지내는 무의(巫儀)로 전변된 제사제도이다. 하늘은 중국 전통문화 속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며, 원시 무술로 하여금 일찍이 천상의 운행과 규칙에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소위 천지대수(天之大數)의 신성한 의미는 고대 천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천문 역법의 시각으로 분석하면 모식화된 숫자 12의 의미 형성 원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2. 천수 12의 의미 형성 원인

천지대수(天之大數)의 신성한 성격을 지닌 숫자 12는 고대 천상, 역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국 고대의 역법에는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를 “십천간(十天干)”이라고 칭하고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를 “십이지지(十二地支)”라

9) 『漢書·郊祀志 下』: “黃帝爲五城十二樓, 以候神人.”

고 칭한다. 십간(十干)과 십이지(十二支)를 순차(順次)로 배합(配合)하여 예순 가지로 늘어놓은 것은 갑자(甲子)라고 칭한다.

간지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관한 학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들어 학자들은 간지를 중국 신화를 배경으로 십일(十日)신화와 십이월(十二月)신화를 대비해서 그 기원을 찾으려고 한다.

한국에서 “동양의 역사, 지리, 민속, 종교 등을 총망라한 대표적인 기서(최형주, 2004: 3쪽)”라고 일컬어지는 선진시대(先秦時代)의 서적으로, 중국 고대신화를 많이 담고 있는 『산해경(山海經)』의 「대황서경(大荒西經)」에는 “대황에서 어떤 여자가 달을 목욕시키고 있는데, 제준의 아내인 상희가 12개의 달을 낳고 여기서 처음으로 달을 목욕시켰다. (大荒之中, 有女子方浴月. 帝俊妻常羲, 生月十有二, 此始浴之.)”라는 신화가 있다. 상희(常羲)는 제준(帝俊)의 아내이고 월신(月神)인데 12개의 달을 낳았다. 이 신화는 옛날 사람들의 달의 운행 주기에 관한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달이 12번 차고 기운 것이 한 주기였기 때문에 고대 성상(星相)학자는 일 년에 12개월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십이지지의 기원이 되는 십이월 신화의 기초는 바로 고대의 천상에 대한 관측에서 유래 되었다. 따라서 12는 천문학의 숫자로 나타난다. 12는 하늘에서 나왔기 때문에 신비하고 신성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이 천인(天人)합일(合一)의 철학사상과 결부되어 여러 문화 현상으로 형성된 근거가 되었다. 앞에 언급한 “천자의 예제” 뿐만 아니라 음양술수가(陰陽術數家)는 12지와 12개월을 배합하여 12월장(十二月將)을 구성하고 흉길(凶吉)을 판단하였다. 음양오행가(陰陽五行家)는 12운(十二運)을 통해서 명운의 흥망성쇠를 표시하였다. 불교에도 핵심적 이론이자 가르침인 십이인연(十二因緣)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중국의 무속 속에도 숫자 12를 많이 응용하게 되었다.

### 3. 중국 무속에서의 천수 12의 응용

나(儼)는 중국 고대 납월(臘月, 음력 12월)에 거행했던 역귀를 쫓아내는 종교 의식인데 무술(巫術)에서 유래되었다. 이 무속 의식인 구나희(驅儼戲)에는 역귀(疫鬼)를 쫓는 12신수(神獸)가 나타난다.

『후한서(後漢書)』의 『예의지(禮儀志)·대나(大儼)』의 기록을 보자.

“납일(臘日, 음력 12월 8일) 전날이 되면 황궁에서 대나(大儼)라는 역귀들을 쫓아내는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였다. 그 의식은 먼저 환관들에서 열살 이상 열두 살 이하의 진자(侏子)로 120명을 뽑는다. 그들은 머리에 붉은 두건을 쓰고 검은 옷을 입고 대도(鼈, 흔드는 큰 북)를 친다. 귀신들의 왕으로 여기는 방상씨(方相氏)는 곰의 가죽을 쓰고 금빛 눈을 4개 달았으며, 붉은 옷에 검은 치마를 둘러쓰고 창과 방패를 들고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한다. 12신수(神獸)는 털가죽을 걸치고 뺨을 단 열두 가지 괴이한 형상의 짐승 모양을 한 사람들이 방상씨를 따라간다. 방상씨의 무리들이 행진을 할 때, 환관들과 궁중 잡다한 일을 맡아서 하는 집사들이 사악한 것을 없애 버리는 바로 이 무리들을 이끌고는 떠들썩하게 황제의 궁전을 왔다갔다 했다. 그때 환관들이 먼저 노래를 부르며 진자들이 따라하였다. …노래를 다 부르고 나면 방상씨와 열두 짐승들은 함께 춤을 추는데, 모두가 소리치고 환호하며 궁전 뜰의 앞뒤를 세 바퀴 돈다. 문밖에 기다리고 있던 오영(五營) 기사(騎士)들이 횃불을 받아 들고 낙수(洛水)에 던져 버렸다.”(範曄, 1998: 2574쪽)<sup>10)</sup>

10) 範曄(1998), 『後漢書』, 『禮儀志·大儼』, “先臘一日, 大儼, 謂之逐疫. 其儀: 選中黃門子弟年十歲以上, 十二以下, 百二十人爲侏子. 皆赤幘皂制, 執大鼈. 方相氏黃金四目, 蒙熊皮, 玄衣朱裳, 執戈揚盾. 十二獸有衣毛角. 中黃門行之, 從仆射將之, 以逐惡鬼于禁中. 作漏上水, 朝臣會, 侍中, 尚書, 禦史, 謁者, 虎賁, 羽林郎將執事, 皆赤幘陞衛, 乘輿禦前殿. 黃門令奏曰: ‘侏子備, 請逐疫.’ 于是中黃門倡, 侏子和, 曰: ‘甲作食歹凶, 胃食虎, 雄伯食魅, 騰簡食不詳, 攬諸食咎, 伯奇食夢, 強梁, 祖明

이 구나 의식에 나오는 열두 신수는 역귀를 쫓아내는 열두 명의 신령을 상징한다. 구나 의식에서 120명의 진지들은 큰 소리로 함께 12신수가 역귀들을 먹어버리려는 노래를 부른다. 이 노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괴들아, 마귀들아  
 너희들은 포악하지마라  
 우리에게는 열두 명의 신령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모두 용맹스럽고 저항할 수가 없다  
 사람을 해치는 놈들을  
 조금도 가차 없이 모조리 없애버린단다  
 너희들의 보잘 것 없는 몸뚱이를 태워버리고  
 손과 발도 몽땅 뽑아버릴 거야  
 너희들 몸뚱이를 난도질하고  
 오장육부를 끄집어낼 거야  
 알았으면 어서 도망쳐라  
 조금만 늦으면 우리 밥이 될 테니까

(袁珂, 1980; 전인초·김선자, 1992: 208쪽)

이 노래는 무속 중 자주 사용하는 주문(呪文)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역귀들에 대한 위협을 통해서 열두 신수의 용맹을 드러내고 열두 신수가 역귀들을 쫓아낼 위엄을 잘 드러내고 있다. 신수의 숫자 열둘은 천상(天象)에서 오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신성한 숫자 12로 이 구나의식에서는 규정되는 것이다. 12신수는 12개 방위(方位)와 대응해서 사방 팔면에서 나오는 역귀(疫鬼)를 쫓는 신령을 상징해서 봉흉화길(逢凶化吉)

---

共食磔死寄生, 委隨食觀, 錯斷食巨, 窮奇, 騰根共食蠱. 凡使十二神追凶惡, 赫女軀, 拉女幹, 節解女肉, 抽女肺腸. 女不急去, 後者爲糧! 因作方相與十二獸舞, 歡呼周遍, 前後省三過, 門外五營騎士傳火棄洛水中.” 嶽麓書社, 2574쪽.

吉)의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역시 무속신앙에서 숫자12의 의미와 상통한다. 12신수는 또 일 년의 12개월과 대응해서 세세(歲歲) 월월(月月) 평안을 기원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구나의식이 습속화됨에 따라 열두신수는 점차 하나의 집단의식으로 구체화된 고정 모식이 되었다.

#### IV. 제주도 무가 속의 숫자 12의 의미

이제 제주도 무가에 나타나는 숫자 12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도 신화는 본풀이라고 하는데 이는 무속신의 이야기로 무속의식에서 구연(口演)된다. “신의 출생에서부터 신으로서의 직능을 차지하여 좌정하게 되기까지의 유래와 내력을 해설하는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는 심방이 무의를 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제상(祭床) 앞에 앉아서 장구를 치며 노래한다. 그러나 본풀이는 심방이 그들의 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의에서 노래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서사무가요가 되고, 그 내용이 신의 내력·행적을 설명하는 신성한 설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신화가 된다(현용준·현승환, 1996: 7쪽).” 원시 종교에의 대량의 무술적 행위들과 이런 행위의 공리성은 신화 구조가 형성한 기반이고 토양이다. 제주도 신화는 바로 무속의식을 통해서 전승되는 살아 있는 형태의 신화이다. 제주도 신화는 무속신앙, 무속의식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신을 대상으로 신을 향해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신성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성함을 가지고 있는 숫자 12는 앞에 II장에 이미 밝혔듯이 제주도 신화에 더욱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 신성한 숫자 12의 구체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하늘을 의미하는 신성함

제주도 무가에서도 12는 천지대수(天之大數), 즉 하늘의 숫자이기 때문에 지극(至極)하고 신성한 의미가 부여된다. 『천지왕본풀이』에는 “월 일광의 시초를 말하니 대소별왕 도업을 말하자. 대별왕 도업을 말했으니, 열다섯 십오성인 도업을 말하자. 천황씨(天皇氏) 열 두 양반, 지황씨(地皇氏) 열 한 양반, 인황씨(人皇氏) 아홉 양반 도업을 말하자.”라는 내용이 있으며(현용준·현승환, 1996: 515쪽) 뒤 부분에는 “신이 오는 군문마다 인정을 걸었더니, 군문을 닫아 잡는 듯합니다. 천황 초군문 이군문 삼세도군문을 잡습니다. 천황(天皇)에 가면 열두 문, 지황(地皇)에 가면 열 한 문, 인황(人皇)에 가면 아홉 문을 잡습니다.”는 내용이 나온다(현용준·현승환, 1996: 525쪽). 여기서 삼황(三皇)에 관한 설명은 『낙서(洛書)』와 함께 주역(周易)의 기본 이치가 되었던 『하도(河圖)』에 다음과 같이 기록된다.

“천황씨가 12두인데 담박하여 베푸는 바가 없었으나 백성들은 저절로 교화가 되었으며 목덕으로 왕이 되었고 섭제(攝提)부터 기년을 시작했고 형제 12명이 각각 18000년을 재위하였다. 지황은 11두인데 화덕으로 왕이 되었고 형제 11명이 웅이, 용문 등산에서 일어났고 역시 각각 18000년을 재위하였다. 인황은 9두인데 운차를 타고 옥우를 몰았으며 곡구에서 나왔고 형제 9명이 9주를 관장하였고 각각 성읍을 설립하였고 모두 150세를 이었고 합하여 45600년이다(黃奭, 1993).”<sup>11)</sup>

11) 黃奭(1993), 『尚書緯·河圖·洛書』, “天皇氏十二頭, 澹泊無所施爲, 而俗自化。木德王, 歲起攝提, 兄弟十二人, 各立一萬八千歲; 地皇十一頭, 火德王, 兄弟十一人, 興于熊耳, 龍門等山, 亦各萬八千歲; 人皇九頭, 乘雲車, 駕六羽, 出谷口。兄弟九人, 分掌九州。各立城邑, 凡一百五十世, 合四萬五千六百年。” 上海古籍出版社, 8쪽.

이 내용은 「천지왕본풀이」에 나오는 것과 일치한다. 이는 “천황씨(天皇氏) 열 두 양반, 천황(天皇)에 가면 열두 문을 잡습니다.”라는 「천지왕본풀이」의 내용이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숫자 12는 천지개벽신화에서 가장 크고 신성한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신을 상대할 때 신에게 바치는 것도 이 신성함이 포함된 12가 나타난다.

구비 전승된 영등굿에 등장하는 열두 시만곡(十二新萬穀)이 세경본풀이, 칠성본풀이, 초감제 등에도 나온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는 “년(年)은 성숙된 곡식(熟穀)이다”라고 하였다. 년(年)이 성숙된 곡식(熟穀)이란 것은 곡이 일 년에 한 번 성숙하는 시간과 같고 12개월과 대응하는 것이다. “열두 시만곡(十二新萬穀)”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수확된 12 종류의 곡식이 아니고 “가을에 거두어들이는 모든 곡식을 일컫는다(현용준·현승환, 1996: 255쪽).” 이 예를 통해 12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신에게 바치는 ‘전부, 모든, 가장 많다’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또 돛제에서 열 두 뼈를 감상하고 열 두 반기를 올리는 것도 신들에게 가장 많고 가장 신성한 것을 올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12는 하늘을 의미하는 가장 크고 가장 많고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신성한 숫자를 의미한다.

## 2. 무속의례에 집단 의식으로 고정된 숫자 12

열두신위전은 제주시 용담동에 위치한 ‘내왓당’에 좌정한 신의 숫자이다. 1991년 6월 4일 제주도 민속자료 제7호로 지정되었다가 2001년 11월 30일 중요민속자료 제240호로 지정되었던 제주도 내왓당 무신도는 지금 11폭이 남아 있지만 원래 12폭이 있었다고 전하는데 내왓당본풀이

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본풀이에서 “서수문 밧 삼동물 7의 좌정호신 열두신위전 본초”라고 하여 이 당에는 12신위가 있다는 사실과 그 근본 내력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왓당 열두 신위전’이라는 구전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물론 역사자료로 12신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지만 숫자 12는 무술(巫術)과의 밀접한 관계로 볼 때 무신도가 12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시왕밧이, 귀양풀이, 요왕밧이 등 굿에서 ‘질치기’ 의례를 할 때 대나무 가지로 12개의 문을 만들고 그 문을 건너갈 때마다 인정을 걸고, 12문을 다 지나야 저승으로 들어간다는 의식과 행동이 집단의식의 공동적 감정과 관념이 숫자 12에서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큰 굿 제차(祭次) 중 중심에 놓인 가장 중요한 밧이굿인 시왕밧이는 명부의 신인 시왕이 오시는 길과 망자의 영혼이 떠나는 길을 닦고 시왕을 맞이하거나 영혼을 저승으로 고이 보내는 굿이다. 시왕은 저승을 차지하고 있는 열명의 왕인데, 저승의 도산지옥(刀山地獄)부터 흑암지옥(黑暗地獄)까지 10개의 지옥을 각각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승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목숨을 그 생갑(生甲)에 따라 관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직능의 시왕 밑에 다시 지장대왕(地藏大王)·생불대왕(生佛大王)·좌두대왕(左頭大王)·우두대왕(右頭大王)·동자판관(童子判官) 등이 있어 그 직능을 보좌하고 있다. 이리하여 시왕 혹은 십오왕으로 말 할 수 있는데 저승길을 치워 닦아 차사와 죽은 영혼을 맞이들이고, 망인의 심회를 말하는 ‘영개울림’을 들은 뒤, 저승의 문을 열어 영혼을 위무하여 저승으로 보내는 행사에서 굿당에 댓가지로 저승의 열두 문을 만들고 저승길을 치워 닦는다. 저승의 문은 열 개 혹은 열 다섯 개가 아니라 열두 개라는 것은 바로 12신수의 역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즉, 12개 방위(方位)와 12개 달과 대응해서 봉흉화길(逢凶化吉)의 의미와 세세(歲歲) 월월

(月月)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월정 본향당본풀이에 나오는 12쪽 치마와 영등굿에서 목간(木竿) 12개를 세워 신을 맞이하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 모두 숫자 12를 통해 나쁜 것을 막고 길상으로 전환하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제주도 무속의례에서 나오는 숫자 12는 중국의 구나 의식에서 12신수가 12개 방위(方位)와 대응해서 사방 팔면에서 나오는 역귀(疫鬼)를 쫓는다는 신령을 상징해서 봉흉화길(逢凶化吉)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일 년의 12개월과 대응해서 세세(歲歲) 월월(月月)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열두신위전, 12쪽 치마, 12개 목간(木竿), 12개 저승의 문... 이처럼 많이 나오는 숫자 12는 제주도 무속의례에 이미 집단의식으로 고정되었고 중국보다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응용되었다. 숫자 12의 신성함은 중국에서는 하늘의 신과 인간의 황제인 두 대상에 한정되어 표현되지만 제주도 무가에서는 모두 신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천인합일”의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아 집단의식으로 고정되는 숫자 12의 신성함은 인간 세상에도 여러 측면에 표현되어 있다. 천인합일의 시각으로 볼 때 숫자 12는 다음과 같이 두 개 의미를 더 가지고 있다.

### 3. 완전한 주기, 온전한 조화와 통일에의 도달

현재 제주도의 큰 굿에서 노래 불리어지는 일반신본풀이는 12편이다. “일반신본풀이는 천지·일월·산해·생사·농경·어로·빈부 등 자연 현상이나 인문현상을 차지하여 지배하는 일반적인 신들의 내력담”이고 (현용준·현승환, 1996: 해제 9쪽) 제주도내 전역에 구송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왜 제주도의 큰굿에서 12편의 본풀이를 구송하는 것인지는 정확한 답이 나와 있지 않지만 숫자 12의 의미를 통해서 대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육지부의 굿을 말할 때도 굿거리를 12거리라고 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농악 12차, 영남 지역 12차 풍물 등 한국 전통문화에서 12는 자주 나타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태양이 도는 황도 12궁의 별자리와 같이 인간의 모든 것을 태양이 도는 황도 12궁으로 맞춰 우주의 순리에 순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명백훈, 2006: 93쪽)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십이지지의 역법도 황도 12궁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천상으로 근거하기 때문에 숫자12는 한국 전통문화에서 완전한 주기와 우주의 질서를 상징함으로써 신성한 수로 인정하여 왔다. 또한 12라는 완전수를 넘어야 온전한 조화와 통일에 도달한다는 인식이 있다 (남성진, 2011: 167쪽). 제주도 큰 굿에서 12편의 본풀이를 구송하는 것도 이러한 한국 전통문화와 일맥상통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 4. 인간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의 상징

중국 고대 역법은 12를 시간과 공간을 나누는 척(尺)으로 여겼다. 이 12계 구분법은 신화의 관념으로부터 기초로 하는 것이고 일월성진의 공간 전환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다. 간지기년의 원시기년방법과 12생초기년의 방법은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도 그 과학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천인합일의 사상은 동양 철학의 하나의 중요한 특성이다. 한국 전통문화도 이의 영향을 받았다. 열두 흉협 풍운 조화(十二凶險造化風雲), 열두 흉협(十二凶險), 열두 풍운(十二風雲), 열두 풍운 조화(十二風雲造化) 열두 재화(十二災禍), 열두 부술(十二符術) 등 제주도 서사무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무술(巫術)적이고 신비한 의미를 지닌 용어들은 모두 12를 기초로 하여 부여된 것이다. 천문 역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12수를 한 주기로 하여 일어난다. 숫자 12는 우주의 질서를 상징함으로써 신성한 수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이것이다.

## V. 결론

숫자는 단순히 계산하는 기호로서의 의미 외에도 특정한 공동체 내에서 사회 현상의 부호화 형식으로서 존재하기도 한다. 그것은 철학·종교·신화·무술(巫術)·습속 등 여러 분야에서 하나의 필수적인 화소로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특별히 신비롭고 신성한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숫자 원형은 신화와 무속 관념에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제2언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자연언어가 대신할 수 없는 신성한 특징이 있으며 특정한 환경에 특정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부호화된 신비 숫자는 모식화(模式化) 되는 과정에서 점점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일반화된 습관적 공중 부호계통으로 변해지고 신화와 무속의식 등에서 많이 사용하게 된다.

제주도 서사무가에는 특정한 숫자가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그 의미가 단순히 계산 기호의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고 집단의식의 공동적 감정과 관념이 들어 있다. 이들 숫자들은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의로 무작위로 쓰여진 숫자가 아니라 특정한 기능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신화에 등장하는 이러한 숫자 원형은 신화적 사고 방식과 원시적 사유의 내재적인 특징을 표현하고 있고, 옛날 사람들은 우주·자연·

인생에 대한 깊은 사고를 구현하고 있어서 다른 민족문화를 이해할 때에도 특수한 가치가 있다. 그 중에서도 숫자 12는 더욱 자주 등장하는 숫자이고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

제주도 무가에서의 12는 하늘을 의미하는 신성한 수이다. 12는 실제의 수인 12가 아니고 전부, 모든, 극한(極限)이라는 뜻이다. 천인합일의 사상은 동양 철학의 하나의 중요한 특성이다. 천간지지(天干地支)중의 12지지(地支)로부터 오는 12가 천문학 숫자로 나타나서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12수를 한 주기로 하여 일어난다. “신화는 말 그대로 신에 관한 이야기지만, 본질적으로는 결국 인간의 이야기다. 신화는 인간 세계의 삶의 역사이고, 자연세계의 형성과 변천을 말해주는 과학이고, 우주와 맞닥뜨리는 이야기다(허남춘, 2011: 150쪽).” 천상(天象)으로 오는 12는 신화의 특성이 부여되고 신성한 상징 의미를 부여 받았다. 숫자 12가 신화와 무속에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중국 무속 신앙인 구나희(驅灘戲)에서 역귀(疫鬼)를 쫓는 12신수는 12개 방위(方位)와 대응하여 사방 팔면에서 나오는 역귀(疫鬼)를 쫓는다는 것을 상징한다. 12신수는 또 1년의 12개월과 대응해서 세세(歲歲), 월월(月月) 평안을 기원한다는 의미로 상징된다. 이는 집단 의식으로 공동의 감정과 이념을 담고 있는데 제주도의 무속의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숫자 12는 제주도 무속의례에 이미 집단 의식으로 고정되었고 중국보다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응용되었다. 숫자 12의 신성함은 중국에서 하늘의 신과 인간의 황제 두 대상에 국한해서 표현되지만 제주도 무가에서는 모두 신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숫자 12는 한국 전통문화에서 완전한 주기와 우주의 질서를 상징함으로써 신성한 수로 인정되어 왔다. 또한 12라는 완전수를 넘어야 온전한 조화와 통일에 도달한다고 인식된다. 이 두 의미는 중국 숫자 12의 의미에서 한층 더 발전한 것이다.

숫자 12뿐만 아니라 3, 4, 5, 7, 9 등 제주도 신화와 무속의식에 나타나는 이들 숫자 또한 각각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숫자들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한 의미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앞으로 민속학, 인류학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여러 나라 문화의 경계를 넘어선 종합적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김영균(2011), 「땃줄과 숫자 3 연구」, 『비교민속학』, 제44집, 비교민속학회.
- 나상진(2010), 「이족 4대 창세서사시에 나타난 상징 분석-숫자상징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論集』 第60號, 中國語文學硏究會.
- 남성진(2011), 「민속예술에서 숫자 12의 도입과 ‘관념의 구체화’ 양상 : 영 남 지역 12차 풍물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제44집.
- 명백훈(2006), 「숫자 12 층만과 완전의 수」, 『경향잡지』 제98권 제12호 통권 1665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박헌봉·유기룡(1965), 「농악12차」,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9호, 문화재관리국.
- 박종한(2003), 「숫자에 담긴 중국문화와 그 활용」, 『中國文化硏究』 第2輯, 中國文化硏究學會.
- 우실하(2011), 「3수 분화의 세계관(1-3-9-81)’의 기원과 홍산문화: 홍산문화에 보이는 성수(聖數) 3, 9, 81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제44집, 비교민속학회.
- 이재승(2003), 「중·의 비교를 통해 본 숫자의 문화적 함의」, 『人文論叢』 第17輯, 경남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 張鈺星(2000), 「中國人의 숫자 관념과 민속」, 『中國學硏究』 第18輯, 中國學硏究會.
- 최형주 해역(2004), 『산해경』, 자유문고.
- 허남춘(2011),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현용준·현승환 역주(1996), 「제주도 무가」,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 範曄(1998), 『後漢書』, 嶽麓書社.
- 黃爽(1993), 『尚書緯·河圖·洛書』, 上海古籍出版社.
- 許慎(1963), 『說文解字』, 中華書局.
- 袁珂(1992), 『중국신화전설 I』, 전인초·김선자 옮김, 민음사.
- 叶舒憲, 田大憲(2011), 『中國古代神秘數字』, 陝西人民出版社.
- 左丘明(2007), 『左傳』, 中華書局.
- Ernst Cassirer(1992), 『神話思維』, 黃龍保 옮김,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Harry A Willmer(1998), 『可理解的榮格』, 楊紹剛 옮김, 東方出版社.
- Lévy-Bruhl, Lucien(1997), 『原始思維』, 丁由 옮김, 商務印書館.

Abstract

The Meaning of the Number 12 in Jeju's Mythology  
-A Comparative Study with China's Mythology and Shamanism-

WANG YAN\*

"Number is a prototype that often appears in our dreams, imageries and hallucinations, which is able to control us." In the long process of human history and culture, numbers have been given special meanings and connotations: "In the collective representations, numbers should be considered as mysterious presence rather than arithmetic units." Especially when the numbers were attached to the specific appearances of objects, they could not be understood through rational understanding, thus they were often given mystical significance. So the numeral prototype is a carrier of primitive concepts and the performance of the collective unconscious. It digitalized the understanding, that has the sacred symbolism, through mythological thinking of the universe. Different numeral prototypes in national cultures contain different mystical connotations and predictive significance.

The mythological and Shamanistic beliefs of Jeju obviously have specific significance. For instance, the 3, 7, 12, 500 Generals and the Eighteen Thousand Gods cannot be simply interpreted as random and casual numeric applications. In fact, they have strict rules, specific functions and significance. The numeral prototype reflects the inherent

---

\* Ph.D. Candidate in Department of Koreanolog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characteristics of mythical and original thinking that also embodies the ancient's deep thinking of the universe, nature and life. It also has a special value in the understanding of national culture.

However, in the current mythological studies of Jeju, the number is only to be recorded as an element of mythical stories or witchcraft rituals. The possible specific meaning of these numbers, like the concern and analysis of the numeral prototype, still seem to be absent and lacking adequate attention.

Starting with the numeral prototype and comparing it with Chinese mythology and Shamanism, this paper reveals the universal law of the symbolic meaning and original thinking behind the number 12 in Jeju's mythology.

**Key Words**

Jeju's Mythology, China's Mythology, the Number 12, group consciousness, the 12 earthly branches , the 12 deity animals.

**교신 : 왕엽**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 102(아라일동, 제주대학교)  
(E-mail : tqyte@naver.com)

논문투고일 2012. 12. 12.

심사완료일 2013. 02. 05.

게재확정일 2013. 02. 15.

